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0월 21일(금)
..(음력 9월 26일)..
Пятница
21 октября 2022г.
№ 41 (1200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금 사할린에서 김장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시장에는 배추 판매가 한창이다.

(배순신 기자 촬영)

단신

쉬코탄, 의료단 무료 진료 진행

올해 '러시아의 국경' 의료-계몽 탐사단이 15주년을 맞는다. 거의 매해 의료진들은 쿠릴열도를 방문하는데 열악한 이곳은 세부 진료과목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10월18일(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렌스크,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5명의 의료진이 쉬코탄섬에 도착했다. 이들은 심장외과, 산부인과, 안과,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류마티스, 지압 및 물리치료사,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성인과 아동 초음파 진단, 성인과 소아 내분비과, 정신과 전문의들로서 10일간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한다.

향토박물관, 한민족문화 행사 개최

10월 22일(토) 오후 4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에서의 한민족 전통 문화'란 주제로 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진 울리아 역사학 박사, 하이 울가 예술 연구전문가와 김영희 민속학 연구전문가의 특강이 있으며, 퀴즈대회를 열 계획이다.

행사에 참관하는 모든 사람에게 2023년 달력을 선물로 선사한다.

행사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후원으로 진행된다.

러시아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계엄령 선포, 타지역에도 보안 단계 조치

10월19일(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안위원회에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헤르손주, 자포리자주에 계엄령 선포를 밝힌 가운데 국가두마에 상정되었고, 문서가 연방 평의회 승인을 위해 보내졌다.

10월19일 연방 평의회에서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계엄령 실시는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계엄령은 2022년 10월 20일 00시부터 발효됐다.

대통령령의 계엄 조치는 '중간 단계 대응'으로서 이는 크림반도, 크라스노다르 변경, 벨고로드주, 브란스크주, 워로네즈주, 쿠르스크주, 로스토브주, 세바스토폴 지역에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지사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통제는 계획돼 있지 않으며, 이들 지역에서의 출입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도 이주나 특별한 출입 정책을 제외하고는 중간 단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통제 조치가 계획돼 있지 않지만 도심에 통금 시간 실시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했다. 그외 지역들에서는 최소한의 통제를 제안하는 가운데 사할린도 포함되었다. 사할린주에서는 주민 생활에 큰 변화는 없으며, 산업 제반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이 강화됐다. 이는 크림대교 테러 이후 취해진 조치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계엄 조치의 목록을 모두 승인해야 하고, 실시 기간과 시행의 특수성을 규정해야 하는 가운데 사할린에 비상대책본부가 조직될 전망이다. 주지사의 결정으로 사할린 전 지역에 최소한의 계엄조치가 발효될 전망이다.

엑손 모바일, '사할린-1' 국유화 후 러시아에서 철수

'사할린-1' 석유가스 기획의 신규 운영 설립 이후 엑손모바일(ExxonMobil)이 러시아 연방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전해졌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우리가 무사히 철수했다고 확신한다. 일방적인 러시아 정부의 2개 규정으로 '사할린-1'기획에서 우리의 이익이 중지되었고 이 기획은 러시아 운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엑손 네프타가스 리미티드(Exxon Neftegas Limited)의 직원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경험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1996년부터 시작된 '사할린-1' 기획의 대대적인 성과가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1' 프로젝트의 새로운 운영 설립에 대한 법령에 서명했고, 지난 주말에 '사할린-1' 유한책임회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등록됐다.

러시아 연방 내각은 '로스네프치'의 자매 계열인 '사할린모르네프체가스-셀프'를 새로운 운영 관리 회사로 지정했다.

이 기획의 참가자인 로스네프치의 계열사들은 신규 운영권으로 (이 기획에 회사 지분에 따라) 총 20%를 받는데 그중 사할린모르네프체가스-셀프가 11.5%, '로스네프치-아스트라(RN-астра)'는 8.5%를 받는다. '사할린-1'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은 한 달 내로 러시아 연방 정부에 새로운 운영권 속에 지분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합의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며, 외국 참가 기업에게 분배되지 않은 '사할린-1'의 지분은 결정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러시아 법인에 매각하게 된다.

사할린 농공산업 종사자들, 30억 루블리 이상의 국가지원 받아

올해 사할린의 종합 농산업 개발에 전례없는 자금이 배정됐다. 당초 18억 루블리 규모의 국가지원이 계획됐으나 이 금액은 두 배 이상인 39억 루블리로 늘어났다. 사할린 기업들은 이미 이 자금의 80% 이상을 받았다.

올해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식품 및 가공 산업의 기업들을 위한 전문 기계 및 장비 구입을 비롯해 종자 구입, 가축 및 가금류 축산업을 위한 사료 구입 비용 상환이다.

"올해 주 정부의 새로운 시행 조건으로 지방의 농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신속히 일련의 필요불가결한 정책을 채택했다. 한 예로 광물 비료 구입 및 배송 비율이 30%에서50%로 증가했으며, 또한 토지개량에 들어간 비용의 상환도 90%에서 99%로 증가했다. 양돈 및 양계를 위한 복합사료 구입에 킬로그램당 14루블리에서 17루블리까지 상환이 증가했고, 육우 축산 비용 상환도 1.9배 증가했으며, 식용 어린 목축 동물 구입 비용 상환도 증가했다."고 사할린 농축산업 및 유통부의 인나 파블렌코 장관이 말했다.

이외에도 2022년 농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시행책을 명목으로 6억 루블리의 추가재정 배정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할린주에서 국가지원의 규모와 명목의 수치는 전례없는 대규모이다.

3년간 지역 예산에서 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해 87억 루블리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추진은 지역의 식품안전의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 농축산업 분야의 추가 일자리도 창출하게 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자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김경순 씨의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작 '눈물의 섬, 사할린' 중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다오'

이번 주초에 필자는 KBS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제 2022 제24회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수상작 발표문'을 전달받았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 역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사람 중 사할린동포들도 있었다. 한국 파주에 영주귀국한 박승의 씨는 우수상을 탔고,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는 김경순 씨는 대상을 따냈다.

박승의 전 사할린국립대 교수의 이름은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 잘 알려진 분인데 김경순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아 궁금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보고 새고려신문사가 개최하는 행사에 초대하여 그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이분의 이름을 몰랐어도 동포들이 하는 행사에서는 여러 번 본 듯, 낯이 익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한 분이란 걸 알았다.

새고려신문 (조선 노동자) 이 처음 발간됐던 해인 1949년도에 태어난 김경순 씨는 네웬스크구역 고르노자위드스크 출신이다. 이곳에서 학교(조선학교 8년제와 러시아 학교 10년제)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재봉사로 일하였다. 23살에 그녀는 신랑만 보고 흠스크로 시집을 갔다.

시아머니를 모시면서 살게 되었는데 신혼의 삶 처음부터 실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일하랴, 남편과

시아머니를 챙기랴, 아이 둘(아들과 딸)을 낳고 돌보랴, 모든 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참기 힘든 일도 많았다. 남편의 가족 쪽에서 하는 모욕적인 말들, 그녀에 대해 들고 있는 좋지 않는 소문을 풀기까지는 2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김경순 씨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자리 없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조건으로 유치원에서 교원 보조자로 일하기도 했고,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서비스 분야로 옮겨 시계수리 작업실에서 접수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허리를 졸라매며, 먹을 것도 아껴가며 절약하고 살았다. 아들, 딸이 공부할 수 있는 학자금도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다. 1990년 경제 위기가 닥쳐 이 돈이 100-1000배 가치를 잃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에만 집중해, 나머지 - 식사, 숙소 등 엄마가 알아서 챙겨 줄게.' 라고 말했다."고 김경순 씨는 힘든 1990년대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런데 당시 많은 기관들이 폐업했고, 김경순 씨도 일자리를 잃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금한 돈은 아무 가치가 없어졌으니 어찌



나',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숙식비는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등등의 생각들이 몰아쳤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포기하라 말은 목까지 올라왔으나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느라 매일매일 도시 여거지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 당시 흠스크에는 꽤 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친구 조언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침실 하나를 중국 장사꾼들에게 임대로 내주었다. 물론 그 임대료도 많이 부족했다. 큰 절약을 하기로 한 김경순 씨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멀리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눈에 밝혀서다.

지인들은 주말마다 고르노자위드스크에 다니는 그에게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쓴 값으로 물건을 주었는데 김경순 씨는 차비만 나올 수 있도

록 판매값을 올렸다고 한다. 너무 많이 값을 올리면 사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된 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아무 장사도 안 되니 너는 무엇보다 자기 자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어느 하루 친구한테서 우수리이스크에 가서 중국 물품으로 장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비용도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다 빌렸다고 하여 이렇게 그녀가 장사에 들어선 역사는 10년이 되었다. 이 장사를 하면서 경순 씨는 10년 동안 하루 3-4시간 자면서 일해 벌려온 돈도 갖고, 아이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중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아이들에게 집도 줄 정도가 되었다. 2013년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6년간은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사할린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왔다. 다행히 1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

우선 그 동안 많이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에 나섰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으며, 의사도 자주 찾아가곤 한다. 그리고 평생 없었던 여유와 자유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가 좋아하는 노래, 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여러 한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었다.

작년부터 그녀는 사할린한국교육원 한민족 문화주부반(담당 설원

화)에 다니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도 늘리고 노래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병일 원장이 가르치는 세계 민족 춤도 익히며, '아리랑'무용단 담당 박영자 씨에게서도 한민족 춤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노인정 모임에 찾아가 밥차리는 여성들을 돕고 있다. 또한 시한인회의 합창단에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사실 노래가 그녀의 이번 수상의 이야기가 되었다.

교육원 문화반에서 한 번 '그 겨울의 찻집' 노래를 들으면서 곡 가사를 바꿀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이 가사를 친구가 이병일 원장에게 보여주었고, 이 원장이 이 노래를 한 번 노인정에서도 불러주고, 그리고 녹음하여 유튜브에도 올렸다. 너무나 인생의 고락이 묻어나는 노래다.

김경순 씨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1910년생, 아버지는 1913년생이다.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 어머니는 14세, 아버지가 10세였다고 한다.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몹시 부지런히 뛰어들어야 할 일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할린에 징용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 사할린으로 왔다. 사할린에서 2-3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황금빛 가을> 전시회에서 사할린주의 제과류, 메달 획득

제25회 <황금빛 가을> 전국 농공산업 전시회에서 사할린주의 제과류 제품들이 상을 받아 돋보였다. 사할린주 제과업체의 젤리와 과자, 초콜릿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할린의 유명 제과업체인 '론지페르스카야 라브카'가 전시회에 참가한 가운데 '고품질 식품 생산' 부문에 4종의 제품을 출시해 모든 제품들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인정받았다.

사할린의 제과인들이 만든 생강 젤리와 '오스트로브노예' 쿠키는 <황금빛 가을> 전시회에서 은메달을 받았고, 크랜베리 젤리와 '초코렛 속 우유' 초콜릿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2021년 <황금빛 가을> 전시회에서는 사할린주의 제과업체들이 5개의 상을 차지했다.

<황금빛 가을> 전시회는 러시아의 종합 농공산업의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로서 매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며, 러시아 각 지역에서 수백 개의 제과업체들이 행사에 참가하여 자체 생산품을 전시하고, 현대적인 농업기술과 혁신 개발 및 농공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에 대한 발표회를 갖는다.

Конфеты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медалями выставки «Золотая осень»

На 25-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й выставке «Золотая осень-2022» отметили наградами сладкую продукцию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мелад, печенье и конфеты островн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завоевали бронзовые и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В выставке принимало участие сахалин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Кондитерская лавка». Компания представила четыре вида своих товаров в номинации «За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й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и весь

ассортимент отметили за отличное качество и вкус. Мармелад с имбирем и сдобное печенье «Островное»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ндитеров получили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выставки «Золотая осень». А мармелад с клюквой и глазированные конфеты «Молочко в шоколаде» завоевали бронзовые награды.

В 2021 году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евали пять наград на выставке «Золотая осень».

Выставка «Золотая осень»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и. Проходит в Москве. Ежегодн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сотн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яя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оводятся презент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азработок и новейш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АПК.

유즈노사할린스크 국제 고양이 전시회에서 '메이 쿤'종 어린 고양이들 선보이다

10월 23일(일) 윈도우 전시 시스템에 따른 국제 고양이 전시회가 '젤레즈노도로즈코브(철도원)' 문화회관에서 10시-18시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사할린의 애완 고양이 클럽 '아완타쥐'가 주최한다.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다양한 품종의 암수 고양이의 우아함을 감상하며, 고양이 주인과 소통하고, 무대 위의 쇼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고양이를 응원할 수도 있다.

또한 관객 인기상 부문에 관람객들은 투표로 자신의 목소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7시에는 메이쿤 종 어린 고양이들을 경매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зыграют котёнка породы мейн-ку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кошек по системе WCF

пройдет 23 октября с 10:00 до 18:00 в ДК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ует сахалинский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шек «Авантаж».

— На выставке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полюбоваться грацией котов и кошек разных пород, пообщаться с заводчиками и поболеть за особо понравившихся животных в шоу на ринге. Кроме того, у собравшихся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за номинанта на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В 17:00 состоится розыгрыш котёнка породы мейн-кун, — рассказа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사할린에서 썰매개 경주가 열려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2022- 날렵한 발굽> 썰매개 경기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맨방 코스에서 사할린주 선수권 결승 대회 메달을 놓고 경쟁을 치렀다.

선수들의 참가 종목은 '크로스, 출전견 1마리', '자전거, 출전견1마리', '스쿠터(킵보드), 출전견2마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스쿠터는 큰 바퀴의 비전동 킵보드이다.

"개와 함께 하는 선수의 운행 직업은 특별한 구동 스포츠 종목이다. 경기에 참가자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개가 달리지 않으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할린주 구동 스포츠 연맹의 드미트리 아르히포브 회장이 말했다.

경기 결과 '스쿠터, 출전견 2마리' 종목 3.08km코스에서 알렉산드르 펠리진이 금메달을 탔고, '크로스, 출전견 1마리' 종목 플로리드 사이토브와 아나스타시야 완디세와가 우승했다. '자전거, 출전견 1마리' 종목 4.07km 코스에서는 스웨트라나 칼리놉스카야가 1위했고, '크로스, 출전견 1마리' 종목 3.08km 코스에서는 2008년생인 워토르 페로브가 출전해 우승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Гонки на ездовых собаках прошли на Сахалине

Гонки на ездовых собаках "Шустрые лапы — 2022" провел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Участники боролись за медали чемпионата и первен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есснеж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8면에 계속)

정영순 교육자, '한국: 동포 눈으로 보는 삶'이란 주제로 사할린 동포와 만남을 가져

지난 18일(화)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 칼리지 부산> 설립 자이며 대한고려인협회 이사 정영순 박사와 만남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새고려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행사 주제는 '한국: 동포 눈으로 보는 삶'이었다.

행사를 연 새고려신문사 배워토리야 사장은 한국, 러시아 및 CIS지역 작가들과의 만남을 많이 개최했는데 올해부터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과 만남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할린 동포 3세인 정영순 씨는 최근 15년째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우선 '러시아 칼리지 부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대한고려인협회의 미션과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및 CIS 지역 동포들의 권익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정 박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이 유리하다는 걸 강조했다.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관련 퀴즈로 이어졌다. 정답을 준 사람들은 상품도 받았다.

그 뒤 질문 응답 차례였다. 정영순 교수의 발표를 주의 깊게 경청한 관객들은 비자 문제, 국적회복문제, 취업 및 이민 문제, 한국에서의 이민자 자녀 교육 문제 관련 질문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어로 된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우리 대학이 '러시아 칼리지 부산'과는 밀접히 교류를 하고 있으며 동 대학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직접 실습을 하여 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전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표명했고, 이번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해준 정영순 선생과 이 자리를 마련한 새고려신문사 측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새고려신문사 관계자는 12월에 최 빅토리아 사할린 작가와 만남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 기자)

이르쿠츠크, 제7차 러시아 대학생 한국어 올림피아드 개최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르쿠츠크에서 제7차 러시아 대학생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열렸다.

이번 올림피아드는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교 국제 경제언어 학연구소와 러시아대학 한국어 교사회가 주최했고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다.

러시아의 18개 대학을 대표하여 총 24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바롭스크, 비로비드잔,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노워시비르스크, 칼미키아, 부랴치아, 사할린 등지를 대표해 참가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의 4학년생 진선혜(한·영어 교육학 전공)와 3학년생 나른스카야 안나(동향학과 재학중)를 선발하여 이르쿠츠크 전 러시아 한국어 경시대회에 참가하도록 했다.

올림피아드에서 참가자들은 글쓰기도 해야 했고, 말하기 발표도 해야 했다. 발표 때 한국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쓰기 과제는 러-한, 한-러 번역, 그리고 속담과 속어를 포함한 한국



어 문법과 어휘 테스트 과제가 포함됐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림피아드 1등의 수상자로는 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국가대학의 다야나 가르마예와 선정되어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프로그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1년간 언어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등의 2명과 3등의 2명은 이어폰과 같은 가치있는 상품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노워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우리 사할린 국립 대학교의 대학생들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대규모 행사에 당당하게 사할린 지역을 대표해 참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할린 국립대 3학년생 나른스카야 안나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욱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욱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전호의 계속)

그러나 외형과는 달리 사실상 3단계 모두 강제 징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은 다르나, 결국에는 강제성을 띤 동원이었던 것이다.

2) '강제동원 등'의 의미

여기에서 '강제동원 등'의 의미는 반드시 외형상으로는 강제동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단계로 조선인들을 사할린으로 모집, 관찰선, 징용 등으로 사할린으로 데리고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1944년 8월 조선총독부제국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동원 계획을 근거로 1939년 이래 매년 남양 방면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송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자는 국민동원계획산업으로서의 광공업, 토목건설 방면에 취로하며, 내지인 노동자에 비하여 손색이 없으며...'라고 보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름은 모집, 관찰선, 징용 등으로 분류가 되므로 노동과 징용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강제동원 등'으로 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1. 누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인가?

누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일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국적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12월 20일이다. 이때에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인가를 규정하지 않았다. 즉 동법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적법, 1948년 12월 20일 제정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조항에서 보듯이 언제부터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일제 시절에는 한국 국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김명기 교수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은 무효이므로 1910년 이후 한국은 소멸된 것이 아니며, 1910년 이후 1948년 이전에 출생한 자도 한국인이면 그는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김명기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한편 이러한 국적논쟁에 관하여 1996년 11월 12일 자 대법원 판결(선고96누1221;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한다. 이러한 판결은 또한 사할린 동포의 국적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된다.

(사건 1) :

(이영순 사건; 북한적을 가지고 있다 가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의 지위에 대하여; 대법원 1996. 11. 12. 선고96누1221판결)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비록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건 2)

(김씨의 아버지는 1910년에,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갔다가 귀국하지 못하였으며, 1954년에 김씨를 낳았으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타국에서 사망하였으나, 그 아버지는 딸에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말 것을 당부하여, 무국적인 채로 사할린에서 거주하였다 한다.)

사할린 한인 국적확인 사건(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12구합26159, 2014. 6. 19.)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 억류 탓에 귀국하지 못하였다.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이다"라는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조선인이었다가 1948. 7. 17. 제정된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위 사건 1과 사건 2에서 보듯이, 북한적이든, 사할린 한인이든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조선인이었다가, 1948. 7. 17. 제정된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호(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참고로 그 당시의 국적관련 법 조문은 아래와 같다.

(표 2)

국적 관련 법조문
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948년 5월 11일 제정.) 제2조 제1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
2.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3.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다음호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ы все люди, у нас есть права»

18 октября 2022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с офици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и 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снователем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Жанной Тен. «Корея: жизнь глаза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 так обозначили тему встречи, котора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На встрече гостя рассказал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нованной ею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городе Пусан, а также о своей актив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Мисс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Жан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защите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рой не учитываются 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ы все люди, у нас есть право получать одинаковый статус визы, у нас есть право добиваться, чтобы Корея относилась к нам как к репатриантам в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е», - высказалась Жанна. Гостя также отметила, что на эту тему выпускаются видеоролики, чтобы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знали, что у них есть намного больше прав, чем они могут предполагать.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была освещена и другая зона интересов гостя,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воспитани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ё-сара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щие ассимилироваться в обществе и привыкнуть к новой жизни. Например, освещаются такие темы, как смена статуса визы,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существующие в стране университеты и т.д.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олной процесс, связанных с нетерпимостью и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Корея формирует новый стандарт, новые координаты.

«Я думаю, есть смысл, чтобы находить компромиссные решения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ть силой, а не тратить свои силы и энергию на конкуренцию», - считает гостя.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можно будет построить то социа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ий в Корею, который с гордостью называет себя корейцем, будет вноси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о благо и процветание страны.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 Бя поблагодарила Жанну Тен за интереснейший рассказ и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а также сообщила, что в декабре состоится встреча с сахали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й Викторией Цой.

Анна Нарынская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риглашают в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22 октября в 16:00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сетить мероприятие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на Сахалин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29. В программ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ыступления трех лекторов – историка Ю.И. Дин, искусствоведа О.Н. Хай и этнографа Ким Ен Хи.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викторина с вопросами о Корею, и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призы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будут вручены календари на 2023 год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Монументы, посвященные Чехову и Пушкину, пополнили уголо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еул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ульского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рядом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 в 2017 году памятником Петру Ильичу Чайковскому появились еще два 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кта,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России. 14 октября там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бюста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и стелы со строкам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ича Пушкина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в переводе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Владимир Бейк, ректор Сеульского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Кан Ин,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звестные русисты, бывшие Пос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Ли Ин Хо и Чон Тхэ Ик.



Президент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нда «Синиль» Ли Сан Гюн поблагодарил посла России Андрея Кулика и сотрудников российской дипмиссии за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дготовке этого значимого события.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будущем здесь 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ик балерины Агриппины Вагановой.

О вкладе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в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напомн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лександр Колганов. Писатель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самых экранизируемых авторов: чеховские сюжеты ложатся в основу фильмов и театр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по всему миру. «Я уверен, что нынешнее поколение читателей, п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творчеством Антона Чехова, на всю жизнь влюбятся в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найдут в них для себя ответы на вечные вопросы человечества», — сказал А. Колганов. — «Отрадно, что в Сеульском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е расширяется уголо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тоявший у истоков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доктор Ли Се Ун давно мечтал об увековечивании в Корею памяти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 писателя,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которого он познакомился еще в молодости и остался от них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Мечту своего отца воплотил в жизнь

нынеш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а и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Ли Сан Гюн. Установленный бюст — копия памятника, ав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заслуженный художник РСФСР Анатолий Николаевич Ни, живший и творивший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стелы со строкам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А.С. Пушкина также не случайно. Однажды артист балета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находясь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читал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в качестве тоста, и Ли Се Ун захотел «сохранить» его.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телы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оэта прозвучало в исполнении известной актрис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Чон Чжа, которая известна любовью к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сполняла главную роль в спектакле «Три сестры» по пьесе А.П. Чехова.

Бывший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Ли Ин Хо отметила, что вопросы о человеке и изменениях истории, которые ставит 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очень актуальны сегодня. «Во все времена Чехов и Пушкин пользовались уважением. Я всегда считала, что знакомство с Россией было большой удачей для меня. Литература дает на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что мы все же похожи, несмотря на наши различ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Ли Ин Хо.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грамоты за помощь в подготовке церемонии были вручены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Владимиру Николаевичу Бейку и лучшему мастеру по металлической скульптуре в Корею Пак Сон Гю, который выполнил бюст А.П.Чехов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вершилась концертом корей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на котором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ергея Рахманинова и Петра Чайковског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верши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орган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орган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IFOAM-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 2022 завершилась 16 октября в уезде Квэс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Цель выставки,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лась 17 дней, подчеркнуть важность органического земледелия и развития смежных отраслей. Он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овинции и базирующейся в Герм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ей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движе-

ния (IFOAM-Organics International). В выстав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27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компаний из 36 стран,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органических 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продуктах.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лужило этапом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баланса, а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о целебную функцию органического земледелия. Выставку посетили почти 750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выразил «разочарование и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действий лидера Япо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и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направил ритуальное подношение храму Ясукун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7 окт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Японии «взглянуть в лицо истории и искренне подумать над ошибками, совершёнными в прошлом». Традиционно японские политики посещают Ясукуни или направляют подношения храму три раза в год.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лично не посещают храм после 2013 года, чтобы не вызы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недовольства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 Аз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К и Китая. В синтоистском храме Ясукуни хранятся списки с именами японцев, погибших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с середины XIX века, включая военных преступников, казнённых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Токио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На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чались полевые учения «Хогук»

17 ок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левым учениям «Хогук»,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по 28 октября.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вершит новые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оэтом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т за активность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Учения «Хогук»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Они нося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нацелены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боеготовност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и повышение слаженности разных родов войск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операций. На этот раз сухопутные, военно-морские и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силы отрабатывают сценарий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 некоторым манёврам будут привлечены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оенных двух стран.

Работа сервисов Кака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лена

Какао Corporation, оператор ряда мобильных сервисов, включая самое популярное в РК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обмена текстовыми сообщениями KakaoTalk,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ила работу своих серверов. Они были поврежде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произошедшег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15 октября в центре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в районе Пхангё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6 часов утра 17 октября уд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около 95% повреждённых серверов,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ервис KakaoTalk работае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Лишь некоторые пользователи испытывают затруднения при отправке видеоклипов большого объёма. Полностью доступны сервис мобильных платежей Какао Pay, игровая платформа Какао Games, платформа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Zigzag. Восемь из 13-ти дочерних компаний Какао, в том числе,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Какао Data и транспортное приложение Какао T, которые вышли из строя, также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лены. По данным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ичиной пожара стало возгорание одного из 30-ти резер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итания серверов на третьем подземном этаже здания. Это первый масштабный сбой в работе сервисов Какао после начала их работы в 2010 году.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группы BTS

15 октября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Yet To Come in Busan в поддержку заявки город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World Expo-2030. Крупнейший в городе стадион Busan Asiad заполнили 52 тыс. фанатов группы, приехавших со всего мира. Концерт транслировался на больших экран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рминале порта Пусан и на пляже Хэундэ.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коло 12 тыс. человек, которых стадион не вместил, могли посмотреть концерт вне стадион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фанатов концерт также транслировал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различных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х. Это было пер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группы на родине с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когда группа дала в Сеуле концерт под названием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Кроме того, это был первый за три года концерт BTS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На предыдущем концерте, состоявшемся на Олимпийском стадионе в Сеуле, могли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максимум 15 тыс. зрителей. После исполнения песни Dynamite небо над Пусаном осветили красочные фейерверки. Концерт привлёк внимани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скольку это мог быть последний шанс увидеть на сцене всех семерых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июне участники BTS заявили,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на сольных проектах, приостановив групп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RKI)

О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цензия на новую книгу Германа Ким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40)

Первое примен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гло бы быть на коях каменного угля в Посъете. Не говоря уже о том, что от корейцев скорее всего можно ожидать сбыт хлеба для войска, что дает прямой барыш от понижения цен, мы получим ту выгоду, что положим основание для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края, облегчая русским его заселение тем, что они придут сюда и найдут многое на месте, что теперь нужно возить за тысячи верст,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ривлечем иностранный капитал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и торг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ласти относились к корейцам то вполне благосклонно, с сочувствием и уважением;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и особенно участливо обошлись в 1869 году, когда случилось сильнейшее наводнение, а затем засуха – тогда они оказали помощь и не дали людям погибнуть от голода, - то жестко ограничивали иммиграцию, которая в их глазах создавала напряжение и опасность вблизи границы. Уже тогда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меры по расселению нов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подалеже вглубь страны. Беженцев из Кореи стали расселять все дальше и дальше от границы на север до Николаевска и на запад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Работа Росса Кинга - глубокое нау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дного из старейших и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села Благословенное. Профессор Кинг пишет: «Это поселени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тем, что появилось в 1871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вой значительной попытк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ереселить больш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от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в Южном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Поселение может служить предме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цесса ассимиляции корейцев, разлученных с (русско-) корей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Корейцы из Благословенного были в сущности оторваны от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и переселены в пустынный регион на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дальше вдоль необжитых берегов Амура и их

связи с корейскими поселениями в Южном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а для кого-то даже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Это поселение известно такж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амалли».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эксперимента были описаны через двадцать лет Григорием Грумм-Гржимайло (1860-1936) в работе «Описание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словенное очень отличается от русских сел. Отдельные фанзы разделены участками земли. Между полями, в основном огражденными изгородью, бегут узкие дорожки. Вокруг каждой фанзы есть принадлежащие хозяину участки земли. Здесь они сажают семена и выращивают различные овощи. Поля возделаны с крайним усердие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скорее овощные сады». Отмечается и различие ведения земледелия – «корейцы более умело и продуктивнее, усерднее возделывают землю. Отличает их стремление к ведению хозяйства вглубь, любовь к труду, порядку и опрятности».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дчеркивают «нравственн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корейцев) над другими: их добродетельную семейную жизнь, 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к христианству и т.д.» и на основе этих качеств делается заключение, что корейцы лучше всего подходят для колонизации региона.

Жителей Благословенного можно условно считать перв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в истории коре сарам. Корейцы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с осуждением относились к ним за то, что они охотно перенимают русские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случилось не сразу, а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Об этом написал путешественник Виноградов: «Проживает в селе около п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православные корейцы, присягнувшие рус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в 1894 году».

Росси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ытались понять, можно ли привить корейцам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какой вклад они могли внест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собенно в сравнении с 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ми китайцами. История этого села очень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и где-то поучительная.

В работе «Синханчхон-прототип «Кориатауна» в России» описываетс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слободк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 том, как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становились городскими жителями, как Синханчхон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лся в центр всей передовой корейской эмиграции, в стыковой узел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 активис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деятелей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ы занимались прибрежными перевозками, рыбной ловлей, добычей морепродуктов. Здесь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оказалось в русле православного миссионерства и в большой степени это касалось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обучавшихся в церковно-приходских школах. Корейцы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тремились иметь собственную школу и в 1902 году первая церковно-приходская школа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и освящена. Малоизвестна история появлен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о вполне вероятно она располагалась в Синханчхоне. Статья тоже очень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и её надо читать.

В перечень помимо названий районов, больших городов и малых поселений, поселков, деревень, хуторов, выселок включены также статьи о корейских колхозах, о рисосеяни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и роли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и отрасли. В статье приводятся данные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личностях – губернатора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х, исследователях края, краеведах – в честь которых названы поселения. В перечень приводятся вс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и поселения, где проживали, пусть даже в мал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Чаще всего данные приводятся на основе отчетов о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что придаёт научность и доказательность приведённых сведени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роГеоргий КАН)

21 из 23 россиян, пытавшихся попасть в РК на яхтах, отказано во въезд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сентябре в России была объявлена частич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более 20 россиян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30 лет попытались проникнуть в РК на морских яхт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Ан Хо Ён, член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 1 по 5 октября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ах РК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пять яхт с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и на борту. Четыре из них пытались войти в порты. 23 человека, прибывшие на яхтах,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Однак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азрешило въезд только двоим из них, которые ранее побывали в РК. Остальным было отказано во въезде из-за неясной цели прибытия и отсутствия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Первая из этих яхт с десятью россиянами на борту вошла первого октября в порт Пусан. Не получив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россияне отправились в порт Пхохан, который покинул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 тот же день яхта с пятью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и на борту пыталась войти в порт Сокчхо, но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оследовал отказ во въезде. В порт Пхохан позже прибыли две яхты, на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находились п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Лишь двоим из них было разрешено сойти на берег. 7 октября в воды близ Пусана вошло польское судно, направлявшееся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Манилу. На второй день оно покинул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ды. На его борту находились три россиянина. Депутат Ан Хо Ён считает, что РК может стать транзитным пунктом для беглецов из России. В этой связ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детальный план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с учёто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вышли из-за черты бедно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удалось повысить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4 тысяч семей.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участники перв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рума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повысить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и достичь лучшего в России показателя по снижению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На 1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на учете в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е состояли 3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это 11 200 семей. К 1 октября число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жителей снизилось до 25 тысяч – 7 200 семей. Наладить адресную работу с семьями помогла цифровая база данных, внедренн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разработали систему адресной,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помощи тем, кто в ней нуждается. Обошли по домам семь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 разработали для кажд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по улуч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Помогаем тем семьям, к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чет выйти из-за черты бедности и готов трудиться. К примеру, мама-одиночка воспитывает двоих детей и получает небольшую зарплату младшего воспитателя. Мы организуем для нее обучение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педагогом в детский сад, где она получает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проектного офис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На каждую семью создается цифровой паспорт, где указаны все доходы и расходы, норматив на домохозяйство и дефицит. С жителями заключается соглашение, где пошагово расписан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и сроки, к которым нужно их выполнит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попали в трудную ситуацию, вед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работ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Вы выстроили вер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 выискивать слабые точки и работать с ними, а не просто забрасывать людей деньгами. Уверен, что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будет полезен и другим регионам России. Такого уровня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системного подхода к управлению данными нет в большинстве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развитию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атом» Сергей Обозов.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соц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и Орловой, больше тре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уже перевели в проактивный режим. Кроме то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лучшают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услуг.

– Мы реформировали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на дому. Раньше социальный работник не мог уделять много времени общению с бабушками и дедушками. Ему приходилось стоять в очередях на оплату квитанций, наводить порядок в квартире подопечного. Теперь оплата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онлайн занимает минуты, а для уборки мы создали отдельную бригаду,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только эти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самую популярную услугу – общение с подопечными. Еще при каждом посещении мы даем бабушкам и дедуш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видеозвонок. Через планшет со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одопечные могут пооб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 рассказала Ольга Орлова.

Н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целен также проект «Забота 65+». Бригады, состоящие из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олонте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обходят пенсионеров на дому и собирают их заказы.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7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тарше 65 лет. Всех их посещают в течение года, фиксируют их просьбы и получают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были они выполнены или нет.

Отметим,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орум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17 и 18 октября.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более чем из 2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С начала года план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стигли уровня 100 и более процентов. В част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води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обуч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объекты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модернизируется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задач ранее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Традиционн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С начала года более 3,5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родителей стали получателями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ы в связи с рождением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3,8 тысячи многодетных островитян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ой при рождении третьего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до достижения ими трех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1,4 тысячи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и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ри рождении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Средств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том числ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островные родител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з проблем устроить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й сад. Для этого мы открываем новые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детский сад на 240 мест заработал в Новотроицком. Ранее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 Дальнем. Это позволило досрочно достигнуть годового

значения показателей по созда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для малыш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3 лет, а также по увелич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детей от 1,5 до 3 лет,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шу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9,5 процента превышен планов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Цифро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реда» – сахалинские и курильские школы оснащают современным компьютерным,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и презентацио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недряют актуальные программные решения.

Более 80 процентов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18 лет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ы центры выявления, поддержки и развития способностей и талантов. К занятиям в технопарках «Кванториум» и центрах «ИТ-куб»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четверть островных детей – это более чем в 3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плановый показатель.

– Чтобы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аксимально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ряд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и нацелен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енной и доступ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популяризацию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лия Главинская.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с начала года треть ж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прошл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осмотры. Так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скрытые заболевания и направить пациентов на лечение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людей госпитализируют – в этом году стационарную помощь получили 10 тысяч обслед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прошли ежегодный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ил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Благодар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ФАПов и амбулаторий, а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нию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жителям сел доступна первичная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Перевыполнен план по вовлечению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занят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Доля островитян, придерживающихся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евысила 62 процента.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возведению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на островах. Сегодня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в Ильинском, а также крытых универс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залов в селах Горнозаводск и Чехов.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ежегодно наращиваем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Новые дома возводя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Так, за 9 месяцев метро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74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Эт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и частные дома, – рассказа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Проект «Чистая вода» позволяет решить задачу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питьевой вод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 этом году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на водозаборе в селе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К примеру, в 2022 году проведё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и сельского клуба села Новиково.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ончить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ела Правда, а также переоснастить центральную детскую библиотеку Невельска.

Особую поддержк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казывают молодым и социальны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С начала года 23 бизнесмена из этих категорий получили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д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открытие или разви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Отметим, рабо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ведется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проект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выполнению планов раньше поставленных сроков.

Сахалинские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более 3 млрд рублей господдержки

В этом году на развит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делен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начально был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гос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ре 1,8 млрд рублей, но эта сумма выросла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 до 3,9 млрд рублей. Свыше 80% этих средств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уже получили.

– Очевидно, чт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отрасль и пище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делают большие успехи. Например,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и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И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Мы активно призываем агробизнес к развитию и созданию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и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в этом году являются: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покупку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а также кормов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и птицы.

– В этом году в условиях новой реальности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ператив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о ряд необходимых реше-

ний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ропрома. К примеру, увеличились ставк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 доставку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 с 30 до 50%. Увеличилась сумма возмещения затра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елиорации – с 90 до 99%,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мбикормов для свиней и птицы – с 14 до 17 руб./кг, на содержание коров мясных пород – в 1,9 раз,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олодняк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мясных пород,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Кроме того, сегодня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выделении в 2022 год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азмере 600 млн рублей.

В цел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о числу направлений и объем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Так, за три года из бюджета региона в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у отраслей вложено 8,7 млрд рублей. Такой подход позволил не только увеличить уровен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гиона, но и созд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помним, по словам полпреда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на первый план сегодня выходит вопрос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регионов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макрорегионе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учитывающие специфику, климат и большие расстояния, для более динам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отряды первыми в России научатся обнаруживать свалки с воздуха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смогут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 работе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с помощью квадрокоптеров. Эту тему обсудили за круглым столом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трудовой молодежи «Дни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В его рабо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ЖКХ,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правления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и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Сахалине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студенческий отряд «Беспилотники», который задействуют в поиске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с воздуха.

– Тема свалок, которые мы обнаруживаем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уже изучена и отработана. Это сезон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ую лучше всего проводить ранней весной и поздней осенью. Сегодня для совершения облетов и фиксаци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с воздуха мы привлекаем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Чтобы к этой работе смогли приступить студенты из числа трудовых отрядов, для них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обучающие курсы. Мы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такой отряд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на базе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Максим Федотов.

При наличии необходимых навыков и требований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в том же объеме, что 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роме того,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готовы предложить обучающимся и другую трудовую занятость. Например, студенты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смогут найти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водителей спецтехники, которую применяют на полигоне «Известковский».

Отметим,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было выявлено почти 1447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Масштабная ликвидация незаконных залежей мусора на системной основе в регионе началась в 2020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Чистые остров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завершится в 2023 год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с жителями региона.

Вопрос о сроках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ани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школы и жилых домов задала жительница Парамушира. Возведение этих объектов задерживается из-за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подрядчика.

– Там был монополист, который останов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ы вынуждены были расторгнуть с ним отношения, сделать ревизию, оформить новый договор, отрегулировать цену. Сейчас объекты переданы другому, более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исполнителю. Постараемся все сделать в 2023 году: школу, больницу и два дом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же во время прямой линии курильча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у губернатора о планах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авод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усора на Парамушире. Житель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сообщил,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берегу втор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пролива много мусора. Его приносит ветром с территории полигона.

–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не должен быть городом, где грязно. Если что-то куда-то раздуло и улетело – это безобразие. Сейчас надо просто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 обратился к мэру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что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на Парамушире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уже в 2024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김경순 씨의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작 '눈물의 섬, 사할린' 중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다오'

(2면의 계속)

그러나 평생 이곳에서 살게 되었고 사할린에서 자녀 1남4녀가 태어났다. 부모님은 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컸다. 부모를 생각한 김경순 씨는 이렇게 노래 '그 겨울의 찻집'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불렀다.

눈물의 섬, 사할린

사할린으로 끌려 왔어요.
조선 땅에서 그 옛날
일본놈들의 시달림 받고
늘 괴로움에 떨었죠
가고픈 고향, 햇살 밝은 곳
부모 형제 사는 마을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워라 내 고향
사무친 한을 풀어 주세요.
하루 속히 날아 가고파
그늘진 세월, 고향 그리며
천천히 한이 되었네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꿈에서 본 내 고향
필자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목이
매이고 눈물이 났다.

그러나 부모의 사연은 그냥 향수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어머니가 한국을 떠날 당시 슬하에 8살인 아들을 사할린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의 반대를 못 이기고, 아들이 할아버지 말을 따르려고 해서 50여년간 생이별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큰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많이 괴로워 했다고 한다. 만팔인 김경순 씨는 늘 어머니에게서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들었다. 1990년에 부모와 큰 아들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와 두달 지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셨다. 아버지는 그다음 해 가셨다.

큰 오빠와 이별 사연으로 두 번째 곡을 쓰게 되었고 또한 이병일 원장이 이에 대해 글을 써서 KBS 체험수기 공모에 보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여 경순 씨는 펜을 들게 되었다고 한다.

큰 오빠에 대한 노래 가사는 '칠갑산' 노래의 곡으로 가사를 바꾸어 만들었다. 역시 눈물바다를 만드는 노래가 되었다.

눈물의 부두 (칠갑산)

부모 잃은 어린 마음을
그 누가 알아 주리오

외롭고 서럽던 아픔
누구에게 원망 주리오
어머니는 내게 같이 떠나자
애달프게 속삭이셨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끝내
따라 간다는 말은 못했소
아~ 어머니 어딜 가셨소
그 손 잡고 같이 갈 것을, 그랬소,
그랬소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다오
어린 가슴 속을 다 태웠소

김경순 씨는 "이 가사와 큰 오빠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찍 썼으면 좋았을 걸."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경순 씨의 오라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김경순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 중 눈물도 많이 흘렸다.

눈물을 많이 흘려도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은 씻기지 않고, 맺힌 한은 갚기만 하다.

(배수신 기자)

· 김경순 씨의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작은 차후 새고려신문에 게재할 예정.

[우리말로 깨닫다]

체념과 깨달음의 세계

길을 걷다보면 갈림길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길을 택하면 다른 길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인생에서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둘 다 손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순간입니다. 이 때 들려오는 단어가 체념입니다. 삶이라는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체념을 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체념(諦念)이란 말을 들으면 포기(拋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전에 저에게 체념과 포기라는 말의 의미 차이를 물으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사실 체념과 포기를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념이 곧 포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체념과 포기는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포기(拋棄)의 한자를 보면 던질 포에 버릴 기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으나 권투 시합에서 게임을 포기할 때 코치가 수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던져 버리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고 싶다는 말이 무섭게 들립니다.

일본어에서도 포기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체(諦)를 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본어에서도 포기와 체념이 잘 구분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주변에 수학 공부가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을 수포자라고 합니다.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정말 모르겠으면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바로 포기의 충동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저앉아 일어나기 싫은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사는 게 포기의 연속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포기라는 말과 체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유의 느낌이 납니다. 포기라는 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다가가갈 수 없다는 느낌인 반면, 체념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웬지 포기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체념에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체념에서는 오히려 달관의 경지마저 느껴 집니다.

사실 체(諦)라는 말은 포기와 관련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한자 체(諦)의 의미를 찾아보면 '살피다, 조사하다, 자세히 알다, 소리 내어 읊다, 진실, 깨닫다'의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진실'과 '깨닫다'는 의미는 불교의 의미라고 합니다. 즉, 체념이라는 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피는 생각이고, 깨달음의 생각인 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체념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것이라고 딱히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착(執着)은 체념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고, 손을 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을 살피고, 조사해서 자세히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본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념은 깨달음입니다. 나를 자라게 합니다.

저는 체념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은 포기하고 말았던 수많은 일들이 웬지 깨달음을 위한 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포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박관념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내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심한 고통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겁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종종 체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의 마음을 열게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알게 되는 일,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일은 소중한 깨달음일 겁니다. 꼭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놓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얽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국립무형유산원, 카자흐 고려인 대상으로 무형유산 교육 실시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류협력 사업 앞서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서 교육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2022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류협력 사업'으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고려인들에게 우리나라 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를 교육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류협력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무형유산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직접 현지에 파견돼 전수하거나 현지의 전통예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014년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해,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을 운영한 데 이어, 10월에 카자흐스탄에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학연화대합설무를 배우고 결과 발표 공연을 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학연화대합설무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큰 행사 때마다 추어졌던 무용으로 학무와 연화대무 두 개의 춤이 하나로 합쳐진 무형유산이다.

10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의 교육은 국립고려극장과 고려인협회 소속 무용단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운영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연화대합설무' 교육에 더해 고려인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무형유산 공예분야를 선보이는 체험교육도 운영된다.



'2022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류협력 사업' 우즈베키스탄(7월) 교육 모습 (사진 국립무형유산원)

앞서 지난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무용단(아사달 등 4개 무용단) 단장을 포함한 현지 무용단원을 대상으로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이화정과 북미경이 강사로 교육을 진행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비롯한 세계 각국 재외동포들과의 문화 교류와 지원에 앞장설 것이며, 후세대들에게 무형유산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해외 입양동포간 네트워킹의 장, 재외동포재단 '2022 차세대해외입양동포대회' 폐회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2 차세대 해외입양동포대회'(2022 OKF Gathering for Overseas Korean Adoptees)가 지난 12일(수)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늘 17일까지 5박 6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와 자녀 등 동반가족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My Heritage My Korea' 등 참가자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F-4 비자 소개 및 취득절차 및 '국적법 및 국적회복 관련 안내' ▲한글 및 한국어 습득을 위한 관련 정보 ▲친족 찾기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등 입양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세션 ▲유물

및 유적관람을 통한 역사체험 및 K-Food, K-Art, K-Pop, 태권도 등 한국문화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7일 11시부터 진행된 폐회식은 참가자들의 활동으로 구성된 스케치 영상, 환송사 및 답사, 시상식 등으로 마무리했다.

정광일 사업이사는 "가슴으로 묻고, 가슴으로 답하는 매우 특별한 동포들과의 만남"이었다고 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우뚝 선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яло сразиться в дисциплинах "Кросс, 1 собака", "Велосипед, 1 собака" и "Скутер, 2 собаки". Скутер — это аналог самоката с большими колесами.

— Ездовой вид спорта особенный, это тандем работы спортсмена с собакой. Даже если участник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 но собака не побежит, то и результата не будет,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ездовог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хипов.

На дистанции 3,08 км в дисциплине "Скутер, 2 собаки" золото взял Александр Фелицин. В кроссе с одной собакой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их видах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Флорид Саитов и Анастасия Вандышева. На дистанции 4,07 км в дисциплине "Велосипед, 1 собака" лидером стала Светлана Калиновская. В первенстве выступил Виктор Перов 2008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преодолел 3,08 км в дисциплине "Кросс, 1 соба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크리스탈', 스포츠 강습에 주민들 초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크리스탈' 체육학교가 피겨스케이팅, 권투, 치어스포츠, 예술 체조 종목에서 무료 강습생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조 스포츠반에는 2015년과 2016년생의 남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10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피겨스케이팅반은 6세 이상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신청서는 11월 6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권투반은 7세 이상의 남녀 학생들을 모집하고, 신청서는 11월6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치어 스포츠반은 7세 이상의 남녀 학생들을 모집하고 신청서는 11월

10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자들은 미래의 선수들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준비 수준을 발표해야 하는데,

표준 시험 실시 일정에 대한 정보는 전자 신청서 번호 입력 후 '아이 스포츠(ISport)'시스템으로 공지하므로 학부모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 신청서의 번호를 보관하길 당부한다.

학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크리스탈'체육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Кристалл" приглашает на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Кристал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детей в группы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боксу, чир спорту и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е.

В группу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и приглашают мальчиков 2015 и 2016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проходит онлайн до 30 октября. Заниматься фигурным катанием приглашают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6 лет.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проходит онлайн до 6 ноября. На отделении бокса ждут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от 7 лет.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проходит онлайн также до 6 ноября.

В группы по чир спорту приглашают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7 лет. Запись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нлайн до 10 ноября 2022 года.

Для зачисления будущим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ровень сво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Информация о времени сдачи контрольных нормативов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в системе "ISport" после ввода номера электро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Родителей просят сохранять номер электро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поданного онлайн.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боре детей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сайт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Кристалл".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시어머님이신 조옥영 씨가 중환 병으로 인해 2022년 10월 19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한인이산가족회,
사할린한인노인회

전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사) 신문사의 편집부장이셨던 김종수 씨의 부인 조옥영 씨가 중환으로 인해 2022년 10월 19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Реклама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x.com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